

에드먼튼 한인침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01. 대림절

오늘은 대림절 두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소망하는 감사와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2. 성탄절 찬양제

남/녀 전도회와 가정, 개인 등 성탄절 찬양제에 참여하기 바랍니다(문의: 정은혜 전도사).

03. 정기 집사회

다음 주 예배 후 정기 집사회로 모입니다.

04. 선교후원헌금

약정하신 선교후원헌금은 매월 첫 주에 “선교후원약정”을 명시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05. 문화사역

[101] 우클렐레 레슨: 인터내셔널(10/11-11/29, 매주 토요일), 한인(10/22-12/10, 매주 수요일)

06. 구약성경 필사

구약성경 필사 신청을 받습니다. 뒷에 있는 탁자에 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07. 전도용 성경

성경과 사영리가 결합된 전도용 성경(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잠언)을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8. 교우 동정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김영순, 김정현, 이광배, 장정윤, 김운희).

히브리서 11장 8-19절 Hebrews 11:8-19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둥밀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아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에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2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 1)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기네 2)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 그가 하나님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인なり

[8] By faith Abraham obeyed when he was called to go out to a place that he was to receive as an inheritance. And he went out, not knowing where he was going. [9] By faith he went to live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land, liv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10]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s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11] By faith Sarah herself received power to conceive, even when she was past the age, sinc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12] Therefore from one man, and him as good as dead, were born descendants as many as the stars of heaven and as many as the innumerable grains of sand by the seashore. [13]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things promised, but having seen them and greeted them from afar, an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exiles on the earth. [14] For people who speak thus make it clear that they are seeking a homeland. [15] If they had been thinking of that land from which they had gone out, they would have had opportunity to return. [16] But as it is,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for he has prepared for them a city. [17]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tested, offered up Isaac, and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in the act of offering up his only son, [18] of whom it was said, "Through Isaac shall your offspring be named." [19] He considered that God was able even to raise him from the dead, from which,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him back. (ESV)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할 세 가지 Lose to Gain

소그룹 나눔 질문 Small Group Discussion Questions

1.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삶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the text, what is the fundamental reason we must simplify our lives and discard unnecessary things?

2. 본문에서 제시된 '걱정'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어떤 종류의 걱정들입니까?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n 'worry' presented in the text, what kind of worries make up 96% of the worries we have?

3. 단순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두 번째 요소는 '고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 경고합니까?

The second element to discard for a simple life is 'arrogance.' What does the text warn that success achieved by human power without God's help ultimately becomes?

4. 본문은 '걱정'과 '고민'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How does the text define the difference between 'worry' and 'deliberation' (spiritual struggle)?

본문 말씀 및 설교 노트

개인선교후원 현황 Personal Mission Support (1년)

이규준 선교사[성경번역] / 최승일 선교사[도시빈민] / 윤재웅 선교사[2세 청년]

111 기도제목 Prayer Topics (2025. 12. 7 - 12. 13)

P7-8, #36-43, [운영관리]/[회복]/[국내전도]/[구제사업]/[미디어팀]